

한방화장품의 개발현황

박창은, 임희선, 이은미

The Research of the development of oriental cosmetics

Chang Eun Park, Hee Sun Lim, Eun Mi Lee

ABSTRACT

Oriental cosmetics make the skin radiant by supplement and circulate qihyu(氣血). Oriental cosmetics aim at the radiant skin based on inner health.

It accords the new trend of 21th century, well-being and naturalism. Recently a lot of new oriental cosmetics have been developed and enjoyed great popularity.

The research of oriental cosmetics elucidated the active compounds having whitening effect and wrinkle cure effect. And the anti-acne and anti-atopy cosmetics have been researched. The development of oriental cosmetics should be based on oriental medical theory.

1. 서론

한방화장품은 한의학적 관점아래 기(氣)와 혈(血)을 보강하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복합처방으로 피부표면으로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혈색을 맑게 하며, 피부의 윤택과 탄력 등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촉진시키는 외치(外治)의 방편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well(건강한, 만족한, 안락한) being(인생)’이 21C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물질 중심적이며, 양적인 팽창에 매달렸던 지난 20C의 역사를 뒤로 하고 자연친화와 건강추구를 삶의 중심에 두는 가치관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피부건강’ 측면에서 연구, 개발되기 시작한 한방화장품은 이러한 ‘자연주의’ 열풍에 힘입어 점차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양한 품종의 출시와 함께 바야흐로 ‘한방화장품’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전래되어온 한방피부미용의 이론과 방법, 즉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자연과 사람이 하나라는 관점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한방화장품은 자연요법을 중시하는 요즘, 미래지향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전통한의학의 피부건강 개념을 도입한 한방화장품에 있어서 ‘신토불이’와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는 물론, 치료보조의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한방화장품의 개발현황에 대해서 연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 론

1. 한방화장품의 개요

1) 한방화장품의 정의

한방화장품이란 화학·광물성 원료를 배제한 천연 한약재의 복합처방으로 한국적 감성과 한의학의 이론적 바탕 위에 기(氣)와 혈(血)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피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피부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1) 과학적 관점

2000년 7월 1일부터 약사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제2조에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화장품 중에서 효능, 효과가 강조된 전문적인 기능을 갖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제2항에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화장품시행규칙’ 제2조에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외선을 차단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인류는 예로부터 천연물을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요긴하게 사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 원료로서 뿐만 아니라 천연물 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으로의 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경험집약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한의학의 치료 영역 중에서 천연물 중 약효가 뛰어난 한약재와 약물처방, 즉 본초학(本草學)과 방제학(方劑學)의 발달은 한의학을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과학의 발달로 천연물 중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검색기술, 물질의 분리, 정제 및 구조 동정에 관한 기술 분야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활성물질 본체의 규명과 작용기전 등의 연구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천연물은 대부분 식물, 동물, 미생물의 2차 대사산물과 1차 대사산물의 일부 및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천연물의 유용성을 평가하여 천연물 의약, 고기능성 식품, 천연물 화장품, 천연 살충제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각종 천연물의 제품화와 산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천연물 화장품은 유효성과 안정성이 평가된 천연물을 포함하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화장품법의 시행과 함께 화장품이 명문화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의 천연물화장품 원료의 개발은 크게 유기합성에 의한 것과 천연자원 유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합성에 의한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유도체를 합성함으로써 단기간에 원하는 물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기합성에 의한 물질 창출은 구조적인 면에서 모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천연물로부터 활성성분의 추출 및 분리기술의 진보와 첨단 분석기기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 화학성분과 생리활성이 연관되어 체계적으로 연구된 식물은 소수에 불과하여 식물이나 미생물 유래의 한약재나 천연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들은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골격의 화학구조가 존재 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 개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무해한 천연물 중 '피부 보약' 개념의 한방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학 공동연구로 특화된 제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은 2003년 3월, '국산 한방화장품 신제품 개발 및 수출전략화 지원'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측은 천연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고부가가치의 신원료나 신소재를 활용한 국산 화장품 원료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만의 원료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한 국내 '한방신원료 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한방 화장품의 개발촉진 및 한방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관련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한방화장품을 검사한 결과 피부보습과 미화에 좋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한방 원료를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산업의 여건으로 볼 때 국산 우수화장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신원료와 신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토산물 연구개발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한방화장품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화장품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동의보감 등 12개 한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성분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방화장품의 개념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화학적 합성에 의한 화장품보다는 피부에 미치는 독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작용이 적고 피부의 각종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는 순수 한방화장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를 화장품 원료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색상이나 원료취 등이 화장품화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서 변색과 변취를 예방할 수 있는 추출 기법인

초임계 추출 방법(Supercritical extraction) 등과 안정화 기술, 주요 성분에 대한 분석, 농축 기술 등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한방원료를 화장품적인 측면으로 우수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해 효과를 배가시키는 기술 개발과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를 응용한 한방화장품의 고품질화 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2) 한의학적 관점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피부미용에 있어서 기본이다. 즉 생명력 있는 건강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미(美)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체와 주위 환경여건 및 감정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생명은 신체와 정신이 잘 조화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 통일된 상태이고, 형(形)과 신(神)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양대 요소이며, 생명미가 있어야 인체가 건강해 보일 수 있다.

둘째, 건강은 인체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며,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조직구조와 기능 활동을 통해 인체가 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게 한다.

셋째, 질병과 노화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질병은 장부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여 인체에 아름다움을 손상시킨다. 예를 들어 비위가 허약하여 기혈의 에너지원이 부족하여 인체가 영양을 잃게 되면, 정신이 피로해지고 안색이 누렇게 되고 입술색이 옅고 몸이 마르고 근육이 이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신(肝腎)이 부족하면 허리와 무릎이 쭉시고 힘이 없고 오래 서있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기미가 많이 끼고 얼굴이 초췌하고 안색이 어둡고 피부가 건조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체가 노화되면서 오장의 기능이 점점 감소되어 “背屈肩隨”, “轉搖不能”, “屈伸不能” 등의 노화현상이 나타나고, 사물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청력도 저하되고 피부도 탄력을 잃어 주름살이 생긴다.

넷째, 사망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든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말할 수 없다. 생명이 다함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피부미용은 신(神)이 중시된 바 신은 곧 정신(精神)이요, 신기(神氣)로서 광범위한 생명활동의 의지를 표현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인체의 정신, 의식, 사유활동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얼굴에 신기(神氣)가 살아 있어서 활력이 넘칠 때에 피부미용효과가 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한방화장품 또한 인체의 형과 신, 즉 기와 혈을 충분하게 하여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표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

2) 한방화장품의 배경

(1) 한국 한방화장품의 역사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는 비교적 단조롭고 짧은데, 국내 화장품 산업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태동기(~ 1925)로 박가분, 서가분의 등장과 함께 화장품의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2단계는 압제기(1926~1945)로 일제 강점시기에 일본 장업사가 대거 진출하여 영업을 시작했으며, 원료는 배급제로 보급하였다.

3단계는 개척기(1946~1970)로 수립된 외제 화장품이 범람하면서 국산 화장품에 대한 보호 육성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4단계는 중흥기(1971~1990)로 화장품의 품질 향상 요구과 마케팅 본격화되었다.

5단계는 국제기(1990 ~)로 화장품에 대한 시장개방,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는 시기이다.

최근 내추럴 뷰티를 포괄하고 현대인의 삶의 가치를 상징하는 가장 트렌드한 단어는 단연 ‘웰빙(Well-Being)’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질 높은 삶을 의미하는 웰빙은 물질적 가치나 명예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삶의 방식이다.

스트레스 넘치는 성공지향적인 일과 후 떠들썩한 술자리보다는 헬스클럽에서 몸을 단련하거나 요가로 정신을 수련하고 생식이나 유기농 식단을 즐기며, 자연주의 화장품을 바르고 자기 개발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현명한 웰빙족들도 늘고 있다.

웰빙은 숨가쁜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단연 매력적인 생활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내추럴 뷰티는 웰빙을 완성하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웰빙에 의해 공해, 인스턴트 음식, 인공조미료 등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먹고, 마시고, 보고, 바르고, 입는 데까지 웰빙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지향하는 자연주의 제품이 큰 인기를 구가하며 발전하고 있다.

내추럴 뷰티는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보다 자연과 가까워지길 바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며 피부에 자연을 선사하는 것인데, 화학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배제한 해초·인삼·토마토·스트베리·허브 등 꽃·과일·채소·허브와 같은 식물의 성분을 추출해 만든 자연주의 화장품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웰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캐비어와 올리브·딸기·청포도·달콤한 초콜릿 등 먹어서 좋은 것은 발라도 좋다는 컨셉을 살린 화장품도 유행하고 있다.

캐비어는 이미 화장품의 고급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쌀·설탕·버터·초콜릿·우유 등을 주요한 원료로 사용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콩과 코코넛·파파야 등의 원료를 활용한 기초 제품들은 이미 저변 확대를 이룬 상황이다. 한방화장품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연주의 화장품의 한 축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내추럴 뷰티 아이템들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인체가 갈수록 면역성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순수 에너지가 몸의 불균형 상태를 가장 자연스럽게 치유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또한 내추럴 뷰티를 위한 자연주의 화장품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첫걸음과도 같다.

이는 한방화장품의 개발 배경이나 한의학적 이론과 일맥상통하여 웰빙산업에 있어서도 한의학뿐만 아니라 한방화장품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반 구축기(1960년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도입되어 화장품 산업은 기술적으로 유화와 가용화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는 유사제품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부분 화장품이 대두되었으며, 부분 화장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입술연지로 1960년 이후 시장에 출하되었고 1962년부터는 아이세도, 파운데이션, 메니큐어, 마스크라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밖에 특수화장품으로는 파마액, 피부표백제, 염모제 등이 출하되었다. 1967년을 전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화장품 관련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새로운 원료의 발굴과 새로운 화장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 시기에 약사법이 제정되었으며 방문판매 유통이 탄생했다.

② 성장기(1970년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장품 산업은 국내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제품 기술면에서는 단순한 피부 건조감의 해소가 아닌 피부노화방지로 그 유효성을 전환시켰으며 이 시기에 개발, 출하된 화장품류는 콤팩트류, 헤어리퀴드류, 샴푸, 린스류, 인삼화장품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때에 1974년 일본에서 인삼 화장품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도 인삼 사포닌의 추출에 성공한 태평양이 미국, 영국, 독일에 국제특허등록을 하고 이어 인삼 사포닌을 함유한 화장품 개발과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1960년대 생산자들은 오로지 도매상을 통한 시판만을 유일한 유통경로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도매상 의존 결과는 도매상의 영향력을 키워줌으로써 도매상들의 제품의 선별구입, 대금의 지불연기, 자금의 점 외 유출, 판매기피 등의 횡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화장품 TV광고가 시작된 시기로 방문판매 유통은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③ 도약기(1980년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신규 참여업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량공급의 과잉 현상이 초래되면서 새로운 제품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하이테크에 의한 기술혁신 및 개발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새로운 미생물 배양법에 의해 양산이 가능해진 ‘히아루론산’이나 조직배양에 의한 시코닌 등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한 새로운 원료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한 바이오 화장품이 시장에 등장했다.

198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상위 7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과점적 시장구조가 점차 경쟁적 시장구조로 변해갔다.

1983년 이후 점차 화장품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는 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선진 외국 기업과의 기술제휴에 의한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모색했다.

그러나 향료, 계면활성제 등 주요 원료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했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었다.

유통에서는 방문판매가 침체기를 맞았으며 직접 판매 유통이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또 전문점 유통이 태동기를 맞았다.

④ 성숙기(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해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투자가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도 제조부터 소매까지 모두 개방되는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과 수입 화장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은 국제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허가제에서 화장품 신고제로의 전환, CGMP제도의 도입, 오픈프라이스제 도입, 방문판매법 실시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유통면에서는 방문판매가 쇠퇴하기 시작한 반면, 직접 판매가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또 전문점 유통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백화점 유통이 도약기를 맞았다.

⑤ 국제화기(2000년대)

21C에는 화장품 산업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국내 기업간의 경쟁은 물론 세계 우수 기업과의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화장품법 시행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출현되었으며, PL법 시행, 소비자보호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로 환경 친화적,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방문판매 유통이 재성장기를 맞았으며 전문점 유통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백화점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통신판매, 대형 할인매장 등 신유통이 탄생했다.

(2) 중국 한방화장품의 역사

문자로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피부미용과 관련된 행위는 세수를 하는 것으로 갑골문자에서 “沫”자로 물을 뿌려 얼굴을 씻는 것 같은 의미이다.

진한시대의 『산해경(山海經)』에서 명확하게 얼굴 피부미용에 영양을 주는 작용을 지닌 여러 종류의 한약을 기재하였다.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미용용품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은, 옹황, 오황, 여지, 완화, 백부자, 돼지기름 등의 약물을 상용한다고 하였다.

진한시대에 『내경(內經)』에서는 비록 전문적으로 피부미용에 관해 논술한 편은 없지만, 피부미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형, 용모, 오관, 모발, 피부 등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었고 특히 경락, 장부, 기혈 등의 학설이 후세의 한방피부미용학 형성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영추해론(靈樞海論)』에서는 인체의 장부는 경락체계를 통하여 지질 부위와 오관, 피부 등과 유기적인 정체관념을 이루며, 외적으로 드러난 용모의 아름다움은 장부의 건강함의 표현이라고 논하였다.

『소문맥요정미론(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내재된 오장의 기능과 외재하는 체표 피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부에서 화생된 기혈과 진액이 오관과 피모를 영양하여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영추본장(靈樞本臟)』 편과 『영추결기(靈樞決氣)』, 『소문상고천진론(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인체의 체형과 용모의 노화의 근본은 신의 정기가 부족해져서

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양명경 등의 삼양맥이 위에서 고갈되어 그렇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이 한방 양생과 피부미용에 중요한 의의를 가져온다.

내경의 장상학설은 한방피부미용학의 “養於內, 養於外”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내경의 경락학설은 추나와 침구 등의 피부미용방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내경에서는 피부미용에 손상을 주는 질병의 병인과 발병기전을 설명하고, 음식의 편식과 기후변화, 스트레스 등이 피부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동한시대에 책으로 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피부미용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을 하였다. 상경에 54종, 중경에 27종, 하경에 19종이 기재되었고, 그 중의 도인, 여위, 백지, 난초, 옥죽 등은 후세에도 많이 사용되는 피부미용약물들로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피부미용약물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동진시대의 갈홍이 지은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에서 『치면포발퇴신취심혼비추방제오십이(治面疱發頰身臭心昏鄙醜方第五十二)』는 현재까지의 문헌 중에서 최초의 피부미용전문서적이다. 양조(梁朝)의 도홍경과 금조(金朝)의 양용도가 정리하여 편찬한 것인데, 피부미용관련 처방이 109개 정도이고 두발, 얼굴, 오관, 비백, 체형관리, 약취제거, 땀냄새 등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의 범주로 하여 사람에게 향기롭게 하고 피부미용외용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소개된 “珍珠, 鷄蛋清, 白芷, 白藜, 上瓜根, 白附子, 黃蓮, 芎藭, 木蘭, 松脂, 茯苓, 蔓荊子, 白蜜” 등은 지금도 상용되는 약물이 되었다. 수나라 소원방이 저술한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에서는 85조항에 이르는 피부손상질환을 언급하면서 임상부분의 특징과 병인과 발병기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여 후세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당대 의학가 손사막의 『비급천급요방(備急千急要方)』, 『천금익방(千金翼方)』은 전문적인 피부미용방제를 다룬 편은 없지만, 얼굴에 사용하는 처방 120여종과 혼향하는 처방 6종과 몸에 지녀 향을 내는 처방 13종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태충과 행간을 자침하여 면혹을 치료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기재하였다. 왕도의 『외대비요(外臺秘要)』에는 손사막의 피부미용방법을 기초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200여 개에 처방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편찬을 하였다. 또 “面藥, 面脂, 手膏, 澡豆” 등의 외용약품 뿐 만 아니라 내복, 안마, 도인, 침구 등의 여러 방법들이 수록되어 이제까지의 한방피부미용을 집대성하였다.

송, 금, 원, 명, 청대의 천여 년 간 봉건사회가 점차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 내에서 여러 차례의 전란과 안정기를 반복하면서 생산능력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지만, 생활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중국의 피부미용은 이론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모두 발전이 있었지만,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부유층에 국한되어

일반인들이 이용도는 비교적 적었다.

송대에는 피부미용에 대한 공헌을 한 의서들이 많은데, 진소우(陳昭遇)와 왕희은(王懷隱) 등은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을 편찬하였다.

그 중 주목할 만 한 것으로 영화공주의 澡豆方으로 당나라 덕종 시대에 궁중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白芷, 白芨, 白藪, 白附子 등 6종의 백색 약재에 桃仁, 杏仁, 沈香, 麝香, 皂莢 등을 첨가하여 향기가 짙고 노폐물을 잘 제거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치료효과가 뚜렷하였다고 하다.

원대의 허국정은 『어원약방(御院藥方)』에서 금원 시대와 이전의 사용한 궁중의 처방들을 모아 편찬하였다. 그 중에서 180 여 개의 피부미용 방제가 보건피부미용 방제로 이용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삼련방(三聯方)인데, 순서대로 세 개의 처방을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 먼저 “楮實散”으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桃仁膏”로 환부에 바르고, 다시 “玉屑膏”를 얼굴에 바르는데, 이렇게 하면 주름을 없애고 피부가 고와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명 초에 주체 등이 편찬한 『보제방(普濟方)』은 피부미용, 화장 등의 방법을 대량으로 수록하였는데, 치료피부미용과 보건피부미용에 관한 처방을 수록하고 병인과 병기에 대한 논술을 하였다. 두면 부위 치료 처방인 “美容膏”를 칭하면서 “피부미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의서에 나타났다.

명대 유명한 의학자인 이시진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은 민간 피부미용 약재들을 대량 수집하여 미백효과, 면간분자 제거효과, 항노화 및 주름방지 효과, 피부보습효과 등의 270 여종에 이르는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수록하였다.

1445년의 『의방유취(醫方類聚)』에는 피부미용에 관한 방제가 많이 수록되었는데, “諸臭門”에 특히 상세한 분석을 하여 기술하였다. 『삼인방(三仁方)』에서는 體臭와 漏液은 體氣가 불화하고 기혈이 불화한데 풍사가 침입하여 진액이 어체된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고, 신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처방 125개를 기술하고 입과 입술과 치아에서 병이 생겨서 나는 냄새도 치료처방을 제시하였다.

청대의 피부미용은 주로 궁중에서 발전된 피부미용인데, 머리를 길게 하고 향이 나게 하는 방법과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비누 등이 있다. 청대 황실의 피부미용기술과 처방들의 연구를 발굴해내고 응용하는 것이 현재까지 피부미용학의 초점이 되었다.

청대 오겸(吳謙) 등이 저술한 『의종금감(醫宗金鑑)』에서는 피부 질환의 진단과 병인과 발병기전과 치료법과 처방 등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하였으며, 玉容散, 水晶膏, 顛倒散, 枇杷清肺飲 등은 한방피부미용의 임상에서 현재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치료효과도 우수하다.

2. 한방화장품의 개발 현황

1) 한방화장품의 과학기술적 Paradigm

(1) 기술적 관점

① 한방화장품과 약성(藥性)

한방화장품의 한약재는 유효 성분만을 추출하여 그 효능과 효과를 보는 화학적 실험방법과는 달리 한의학 고유의 본초 및 방제 이론인 한약의 성질과 기미론에 의거하여 처방되어야 한다.

인체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체내로 흡수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입으로 내복하는 방법과 피부에 발라서 흡수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방화장품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데 체내와 피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먹어서 좋은 약이 피부에 발라서도 동일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한방화장품으로 개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약 고유의 성질을 한방화장품학에 접목시킨다면 화장품에 관한 이해와 해석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療寒以熱藥 療熱以寒藥”이라고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고, 한(寒)·열(熱)·온(溫)·량(涼)의 사기(四氣)로 한약의 약성이 분류된다. 차가운 성질을 지닌 한량약(寒涼藥)으로 여드름 즉 분자(粉刺)를 치료하는 금은화, 포공영, 치자, 황연, 황백 등이 있고, 기미 즉 흑반(黑斑)을 치료하는 목단피, 적작약 등이 있다. 또 비신양허(脾腎陽虛)하여 생긴 기미와 비허(脾虛)하여 습(濕)이 정체되어 안검 및 얼굴이 검은 증상에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온열약(溫熱藥)을 처방하는데 부자, 만삼, 계지, 진피 등이 있다.

② 한방화장품과 약미(藥味)

한약은 산(酸)·고(苦)·감(甘)·신(辛)·함(鹹) 등의 오미(五味)로 분류되어 약미에 따라 각각의 작용을 한다.

신미(辛味)는 발산(發散), 행기(行氣), 행열(行熱) 작용을 하며 백지, 세신, 방풍, 고본, 신이, 곽향, 정향 등이 있다.

감미(甘味)는 보익(補益) 작용을 하며 기혈을 보익하고 자음윤조(滋陰潤燥)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며 탄력을 주는데 숙지황, 황정, 백출, 하수오, 맥문동, 백자인 등이 있다.

산미(酸味)는 수렴(收斂), 고습(固澁) 작용을 하는데 피부습창, 화상, 궤양 등에 치료효과를 갖고 오미자, 용골, 모려, 적석지, 오적골 등이 있다.

고미(苦味)는 해열(解熱),通便(通便) 작용을 하며 대황, 황금, 황연, 용담초

등이 있다.

함미(鹹味)는 연건(軟堅), 산결(散結), 사하(瀉下) 작용을 하며 해조, 곤포 등이 있다.

③ 피부미용 한약의 효능

해표약(解表藥)은 외감풍한, 풍열, 풍습의 사기로 일어난 얼굴의 흑반, 분자, 면풍, 안검하수, 구안와사, 순풍(脣風), 피부소양 등을 치료한다.

청열약(淸熱藥)은 한성(寒性) 약재들인데, 설화(泄火), 해독(解毒), 량혈(涼血), 청허열(淸虛熱)의 효과가 있어서 화열독(火熱毒)으로 인한 홍종열통(紅腫熱痛), 창양(瘡瘍)을 치료하고, 이열증(裡熱症)으로 인한 주사비, 열창, 칠창, 분자, 면풍을 치료하고, 혈열증(血熱證)으로 인한 유풍(油風), 백발, 분자(粉刺)를 치료하고, 음허내열(陰虛內熱)로 인한 흑반, 작반(雀斑), 얼굴 주름, 얼굴 암자색, 수척 등을 치료한다.

사하약(瀉下藥)은 고한(苦寒)한 약재가 많고, 사하통변(瀉下通便)으로 식열적체(食熱積滯)를 해소하는데, 대황, 옥이인 등이 있다.

거풍습약(祛風濕藥)은 피부와 경락에 정체되어 있는 사기를 제거하여 좌창(瘰癧), 주사비 등의 피부병을 치료하며 독활, 상지, 백화사 등이 있다.

방향화습약(芳香化濕藥)은 신온(辛溫)하고 향조(香燥)한 약물이 많고 기표(肌表)의 모공을 열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을 소통하게 하며 곽향, 창출, 후박, 백두구 등이 있다.

이수삼습약(利水 滲濕藥)은 수습(水濕)이 정체되어 일어나는 증상과 습사(濕邪)가 피부에 넘친 질환으로 비만증을 치료하며, 복령, 지령, 의이인, 차전자, 동과피, 적소두 등이 있다.

온리약(溫裏藥)은 비신양허(脾腎兩虛)한 증상으로 얼굴이 붉는 증상에 면부의 기혈 소통을 촉진하는 부자, 육계, 건강, 세신, 정향, 소회향 등이 있다.

이기약(理氣藥)은 기체(氣滯)로 일어나는 질환 특히 간울(肝鬱)로 생긴 흑반(黑斑)을 치료하고, 진피, 지실, 목향, 향부자, 천련자 등이 있다.

활혈화어약(活血化瘀藥)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색의 암자흑, 청자흑으로 색소침착으로 어혈반점이 생기고 혈사(血絲) 비후(肥厚), 결절, 종괴, 종창, 피부갑작, 특정부위동통 등을 치료하는데, 천궁, 단삼, 삼능, 봉출, 익모초, 도인, 홍화 등이 있다.

화담약(化痰藥)은 연건산결(軟堅散結)하는 작용을 하는 반하, 천남성, 폐모, 해조, 곤포 등이 있다.

보허약(補虛藥)은 기허(氣虛), 혈허(血虛), 양허(陽虛), 음허(陰虛)로 세포의 면역기능 저하와 신경 및 내분비 계통의 조절기능 문란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인삼, 황기, 산약, 백출, 대추, 녹용, 음양곽, 두충, 호도육, 토사자, 당귀, 숙지황, 하수오, 백작약, 사삼, 맥문동, 옥죽, 구기자 등이 있다. 외용약(外用藥)은 생기렴창(生肌斂瘡), 살충지양(殺蟲止痒), 배농거부(排膿祛腐)하는 효능이 있어서 종기(腫氣), 창절(瘡節), 개선(疥癬) 등의 질환을 치료하고 옹황, 유황, 노감석, 붕사 등이 있다.

(2) 미백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성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외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미백화장품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화학기술지(1989)에서 7백 34명을 대상으로 여성이 자신의 피부를 개선하고 싶은 욕망도를 조사한 결과 기미, 주근깨, 일소, 흑화를 해결하여 하얀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잔주름 제거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멜라닌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피부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표피 기저층에 있는 색소세포에서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티로신으로부터 도파, 도파 퀴논 등의 중간물질을 거쳐 멜라닌이 형성된 다음 피부의 각화와 박리를 통해 체외로 없어지게 된다.

기미·주근깨 역시 자외선에 의해 멜라닌이 과량으로 생성되어 턴오버 이상에 의해 색소가 침착된 것이기 때문에 미백성분은 멜라닌 생성억제 또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환원 또는 제거로써 그 기능을 해야 한다.

피부에 있어 멜라닌 생성과 대사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백 성분의 작용대상으로는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억제, 기존 멜라닌의 환원, 피부 내 멜라닌 배출촉진, 멜라닌 세포에 대한 선택적 독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비타민C는 피부안정성이 우수하고 콜라겐합성 촉진능력도 있어 좋지만 그 자체가 불안정하여 산화되기 쉬우므로 비타민C, 지방산 에스테르 또한 비타민C 인산 마그네슘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경미하고 사용량에 한계가 있어 다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생약성분으로는 인삼추출물에 함유된 사포닌이 타이로시나제 억제 작용을 하며 알로에베라의 에모던 성분, 상백피의 페놀계 플라보노이드, 당귀의 고린성분, 작약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각각 미백효과가 있고 그 외 황금추출물, 녹차추출물 등에도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라센타는 3-4개월된 소의 태반에서 추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생리활성 성분

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멜라닌 색소를 배출, 탈락시키는 작용으로 일반 화이트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료이다. 감초추출물 특히 러시아산 감초추출물에 많이 함유된 유용성 성분으로 글라브리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타이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며 미백 작용이 우수하며 피부부작용도 없어 화장품용 미백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미백성분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성분으로는 알부틴과 코직산이 있다. 알부틴의 경우 하이드로퀴논의 당유도체로써 멜라닌 생성억제와 타이로시나제 활성억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미 및 색소침착의 원리

(1) 한의학적 기전

기미와 색소 침착은 주로 간장, 비장, 신장 등 세 장부의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한다.

① 간울기체(肝鬱氣滯)

사려과다, 칠정의 문제로 간이 소설(疏泄) 기능을 못해 면부에 반편이 있고 안색은 황갈색으로 크기는 일정치 않으며 주변이 지지분해 마치 호접(蝴蝶)과 같이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그 외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화를 내고 생리가 불순하고 생리통이 수반되고 설질이 붉고 혹은 어둡고 맥은 현(弦)한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氣의 운행이 불창하여 기혈어체(氣血瘀滯)가 생겨 면부를 영양하지 못해 발생한다.

② 비허습성(脾虛濕盛)

음식으로 혹은 피로누적으로 비양(脾陽) 부족으로 운화기능이 실조되어 수습(水濕)이 정체되고 습사(濕邪)가 응체되어 경락에 저체된 결과 안면부를 영양하지 못해 발생한다.

색이 회갈색 혹은 담흑색이며 비측부(鼻側部), 관골 부위, 뺨, 이마 등에 대칭적으로 존재한다. 그 외 식사량이 적어지고 소화가 잘 안되며 기운이 없고 생리주기가 늦어지고 설질은 열고 설태는 회고 두터우며 맥 유약(懦弱)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③ 신음휴손(腎陰虧虛)

지나친 성관계, 피로누적 등으로 신(腎)을 상해 신정(腎精)이 모손되고 신음(腎陰)이 휴손되어 허화(虛火)가 상염(上炎)하여 부락(浮絡)를 상해 면부(面部)를 영양하지 못해 발생한다.

색(色)이 심갈 혹은 흑갈색으로 호접(蝴蝶)과 같고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외 생리주기는 빨라지고 조점(稠粘)하며 암홍색을 띠며 허리와 무릎이 쭈시고 약해지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수반하고 손발바닥에 열이 나고 설질은 붉고 설태는 적고 맥은 세삭(細數)한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④ 신양부족(腎陽不足)

지나친 성생활로 신음(腎陰) 뿐만 아니라 신양(腎陽)까지 상하거나 오랜 병으로 양기(陽氣)가 허쇠해져 신양부족(腎陽不足)이 발생하고 음한(陰寒)이 성하여 기혈을 온후(溫煦)하지 못한 결과 안면부에 어체되어 발생한다.

색이 회흑하고 얼굴의 관협부(顴頰部)에 호접상(蝴蝶狀) 혹은 지도상(地圖狀)으로 분포한다.

그 외 생리주기는 늦어지며 색은 어둡고 덩어리가 있으며 허리와 무릎이 쭈시고 아프고 사지는 따뜻하지 않고 소변이 맑고 길게나오고 설질이 열고 설태가 희고 맥은 침지(沈遲)한 등의 증상이 수반된다.

(2) 서양의학적 기전

기미는 주로 출산기의 여성에서 발생하나 약 10% 정도는 남성에서도 발생한다. 태양광선에 대하여 노출이 심한 여름에는 악화하며 노출이 감소하는 겨울에는 호전된다.

기미는 임신, 경구 피임약, 내분비 이상, 유전인자, 약제, 영양 부족, 간 기능 이상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나 대부분은 임신 혹은 경구 피임약의 복용 후 발생된다.

3) 미백작용 원리

Melanocyte에서 Tyrosine의 산화환원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Melanin을 감소시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① Keratinocyte로 전달된 Melanin 색소를 신속히 Exfoliation 시키는 방법
- ② 생합성된 Melanin이 Melanocyte로 전달 차단방법
- ③ Melanin중 Pheomelanin이 효율적으로 합성되도록 유도방법
- ④ Tyrosinase효소활성을 억제하는 방법
- ⑤ Tyrosinase의 mRNA 혹은 단백질 생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 ⑥ Tyrosinase효소활성 및 생합성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차단하는 방법
- ⑦ Cytokine이나 Hormone receptor차단으로 Melanocyte세포막 신호차단방법

4) 미백화장품 원료

- (1)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아스코르빈산)은 대표적인 미백제로서 예로부터 사용되어 안전성은 높지만 불안정한 것이 단점이다.

(2) 태반추출 엑기스

태반 이용 역사는 예로부터 임신 초기의 동물태반에서 열처리와 화학처리에 의하지 않고 생물학적 활성물질을 그대로 추출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에 사용하는 사고에서 출발했는데, 처음으로 동물 태반에서 프라센타 리퀴드가 추출되어 오늘날 화장품·약용화장품에 태반추출물을 이용하는 실마리가 열렸다.

프라센타 리퀴드는 임신 3개월 전후의 건강한 소의 신선한 태반에서 저온으로 추출된 조직추출물로 수용성 비타민류 약 10종, 아미노산류 약 16종, 미네랄 10종, 콜레스테롤·에스텔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프라센타 리퀴드 효과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보고가 있고 피부의 조직호흡 항진작용, 피부유연화작용, 여자 안면흑피증, 간반개선, 말초혈류장애 개선, 잔주름, 피부거칠음 개선 등 피부과 영역에 있어서 치료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람의 태반을 원료화하기 위해 저온추출법에 의한 수용성 엑기스를 연구하고 있다. 원료가 분만 후의 태반이기 때문에 소의 태반과는 다르지만 약리작용·독성·안전성에 관해서도 연구되고 있으며 미백을 목적으로 화장품과 약용화장품에 원료로 배합되고 있다.

(3) 상백피 엑기스

상백피는 양잠을 위해 재배되고 있는 뽕나무의 상근백피로서 한약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소염·이뇨·해열·진통약으로서 기관지 담·천식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상백피의 타이로시나제 활성억제에 관해서는 활성성분 분화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코직산

코직산은 삼성제약이 개발하기 앞서 시오노기제약사에서 30년 전에 특허를 얻어놓고 안정성 문제로 제품화하지는 못하였으나, 특허 만기 후 삼성제약에서 안정화 연구에 박차를 가한 끝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5년간에 걸친 시험 끝에 일본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제품 생산에 성공하였다.

코직산은 1988년 4월에 삼성제약이 그을림에 따른 기미·주근깨를 방지하는 신규 의약부외품으로서 승인받았다.

코직산의 미백기능은 타이로시나제에 직접적으로 억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고 색소세포에 있어서 멜라닌 중합과정을 억제한다.

3. 주름완화 (노화방지)

1) 노화 피부

노화란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생체변화라는 의미와 성숙기 이후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노화를 정체관에 의거한 유기적 관계 하에 생체 쇠퇴의 변화로 고찰하고 있는데, 음양의 변화, 장부의 변화, 기혈의 변화, 경락의 변화, 정신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체의 노화 과정 속에서 피부 변화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므로 피부미용은 곧 항노화, 즉 노화방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음양(陰陽)의 변화

만물을 음양의 변화로서 이해하는 것이 동양의 근본적 사상이며 천인상응론(天人相應論)의 도리에 따라서 이 사상은 생체의 발생(發生), 성장(成長), 노화(老化), 사(死)라는 변화로 설명하는 동양의학상의 기본적 이론이 된다. 사물의 변화는 모두 음양의 변화 법칙에 따라 발생하고 일체의 성장, 소멸은 모두 이 법칙에서 비롯된다. 생체는 모두 음양의 밸런스에 의해 유지되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양손 급음(陽損及陰), 음손급양(陰損及陽)이 생체의 병적 상황을 야기하며 음양양허(陰陽兩虛)가 되면 생체의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2) 장부(臟腑)의 변화

장부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서 인체에 노화라는 상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30대는 오장의 기능이 가장 왕성하고, 50대는 간기(肝氣), 60대는 심기(心氣), 70대는 비기(脾氣), 80대는 폐기(肺氣)가 서서히 쇠퇴하고 신기(腎氣)는 노화의 초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90세에 신기가 쇠퇴한다.

간(肝)은 혈(血)을 간직하고 신(腎)은 정(精)을 간직하는데 정과 혈은 서로 상호 생성 변화할 수 있어 간신동원(肝腎同源)이라 불린다. 간신의 정과 혈은 인체의 피부와 모발을 유양하는 작용을 하고 음양의 평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간신부족은 인체의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모습이 초췌해지고 얼굴색이 어둡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청력이 저하되고 눈앞이 어른거리고 허리와 무릎이 쭈시고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신음허(肝腎陰虛)하면 간양(肝陽)이 상항하여 노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 몸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잘 못 이루고, 눈 밑이 검게 되며 기미가 생기는 등의 화(火)와 조(燥)가 결합된 증상

들이 나타난다.

(3) 기혈의 변화

『영추본장(靈樞本臟)』에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主於性命者也”라고 하였는데, 양기(陽氣)와 음혈(陰血)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약해지며 이 감쇠가 노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화에 관해 특히 중시되는 것은 기의 작용으로 氣는 血의 師이며 血은 氣의 母로서 양자는 상생적 관계이다.

(4) 경락의 변화

경락은 기혈영위(氣血榮衛)가 운행하는 전신에 분포된 통로이며 각 장부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체를 면밀히 연락시켜 생체를 통일체로서 유기적으로 작동케 하는 계통이다. 따라서 경락의 순환장애는 기혈의 운행 장애를 일으키고 질병의 발생 혹은 쇠퇴와 노화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5) 정신의 변화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年壽得長者 非短而緩之也.....大喜, 大怒, 大優, 大恐, 大哀 五者接神則生害矣.”라하여 칠정(七情)이라는 반응에 의해 생기는 내적장애(內傷)가 노화발생의 주요인자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2) 노화의 한의학적 원인

(1) 선천부족(先天不足)

선천의 신기부족(腎氣不足)을 말한다.

노화나 요절(夭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기(腎氣)의 강약과 신기(腎氣)의 성쇠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 후천실조(後天失調)

『소문·상고천진론(素門上古天真論)』에 “起居有常 不妄作勞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라 했는데 이는 기거, 노동, 휴식이 모두 적당하고 일정한 규율성이 있어야 안으로는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정기를 배양할 수 있고 밖으로는 사시 음양변화에 적응하고 사기(邪氣)의 침습을 피하여 건강을 영위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신실조(精神失調)

“神去則機息”이라 하여 정신이 사라진다면 육체의 기능도 정지한다는 말이다. 정신은 인체의 생명활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인체에서 무릇 가장 중요하니 정신의 사고방향에 따라 육체의 건강이 지배를 받는다.

3) 서양의학적 이론

(1) DNA 프로그램 이론

노화의 과정이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조절된다는 이론이다.

(2) DNA 복제이론

DNA 복제 시에 DNA 손상으로 오류가 생기며 이러한 오류는 결국 세포의 기능적 장애와 노화를 일으킨다는 DNA 복제이론이다.

(3) 오류 변이 이론

DNA의 정보가 DNA로 전달되는 과정 또는 단백질 합성이 되는 단계에서의 오류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며 이들의 세포 내 축적이 기능저하를 일으킨다는 오류변이 이론이다.

(4) 연결고리 이론

세포 내외의 단백질 연결고리 증가로 노화가 온다는 것이 연결고리 이론이다.

(5) 섬유질 이론

주로 교원질로 구성된 결합조직의 섬유화가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섬유질 이론이다.

(6) 조정인자 혹은 내분비물 이론

흉선, 뇌하수체, 시상하부, 갑상선 등과 같은 조정인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등의 장애가 세포의 노화에 관여한다는 것이 조정인자 혹은 내분비물 이론이다.

(7) 면역학 이론

면역세포가 조정인자로 작용하여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노화에 동인되는 병인을 수반한다는 것이 면역학 이론이다.

(8) 비순환 세포이론

순환세포가 비순환세포로 변화되는 것이 조기 노화와 연관된다는 것이 비순환 세포이론이다.

(9) 프리라디칼 이론

생체의 세포 내에서 산소의 불완전 환원으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산소 라디칼들이 생단백질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프리라디칼 이론이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은 프리라디칼 이론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리라디칼(free radical)이란 외각 전자들이 쌍을 이루지 않아서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말하며 인체에서는 산화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활

성 산소 형태의 프리라디칼이 가장 문제가 된다.

활성 산소는 자외선, 흡연, 음주, 공해물질 등에 의해 생성이 촉진되며 활성 산소가 많아지면 멜라닌의 생성이 급격하게 존재하여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교원섬유의 손상과 주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활성 산소는 세포와 조직에 나쁜 영향을 주어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로 항산화제가 있는데 항산화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등과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코엔자임 Q10, 녹차의 카테킨,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superoxide dismutase, SOD), 카탈라제(catalase) 등이 있다.

4) 노화관련 질환

자연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성 색소반 (검버섯)
- ② 노인성 백반
- ③ 노인성 혈관종
- ④ 유괴종
- ⑤ 노인성 신경 섬유종
- ⑥ 노인성 면포
- ⑦ 노인성 지선 증식증
- ⑧ 일광각화증
- ⑨ 악성흑자
- ⑩ 피부암(유극세포암, 기저세포암)

5) 피부 노화의 기전

피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잘못된 피부의 관리로 인하여 혹은 세포의 단백질을 훼손시키는 심한 일광이나 바람,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혹은 내부질환이나 기타 건강이 나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불만이 누적될 때, 심한 운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혹은 의약품의 장기복용이나 영양부족으로 인하여 혹은 술, 담배 등으로 인하여 혹은 세균 및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혹은 항염증성 크림의 과다 사용 혹은 단기간의 심한 체중감소 등으로 발생한다.

6) 노화의 결과

자연노화와 환경에 의한 노화가 50:5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1) 내인성 원인 (생리적, 자연노화)

A) 표피의 노화

- ① 표피는 90% 이상이 각질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스러운 각화에 의하여 28일주기로 표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노화된 피부에서는 주기가 더 길어진다.
- ② 노화가 시작된 피부의 기저층에는 세포분열의 능력이 저하된다.
- ③ 각질층이 두꺼워져 피부의 투명감이 줄어들고 칙칙해 보이고 거칠어진다.
- ④ 멜라닌세포 수가 감소하여 모양은 균일하다.
- ⑤ 멜라노솜 생산이 불완전하다.
- ⑥ 멜라닌 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자외선에 대한 방어기능이 떨어진다.
- ⑦ 피부의 감각기능이 감소한다.

B) 진피의 노화

- ① 콜라겐의 섬유축이 굵어진다.
- ② 탄력섬유의 수가 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
- ③ 진피는 탄력과 수분력이 떨어져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이 형성된다.
- ④ 망상층이 얇아진다.
- ⑤ 모세혈관의 확장증상이 없어지며 정상적인 혈관을 갖게 된다.
- ⑥ 림프관이 약간 감소한다.
- ⑦ 혈관이 약해지면 수축력이 감소한다.
- ⑧ 피하지방세포가 감소한다.
- ⑨ 피하지방층의 감소와 혈관의 분포가 감소되면서 피부의 온도가 낮아진다.
- ⑩ 안드로젠의 분비감소로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여 피부의 건조가 빨라진다.
- ⑪ 노화로 인해 한선의 수가 감소하여 열 자극에 대한 방어기능이 저하된다.
한 여름에 노인들의 사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2) 외인성 원인(환경적 노화, 광노화)

자외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생기는 노화로서 광노화라고 한다. 광노화는 처음에는 백인에게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이제는 유색인종에게 특히 고지 주민에게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A) 표피의 노화

- ① 표피가 두꺼워진다.
- ② 암이 생기기 전의 증상과 유사하게 세포가 무질서한 배열상태를 보인다.
- ③ 케라티노사이트가 비대해진다.

- ④ 죽은 세포인 각질층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진다.
- ⑤ 각질층의 두께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 ⑥ 멜라노사이트 세포가 이상 항진된다.
- ⑦ 멜라노솨의 생산이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가 생긴다.

B) 진피의 변화

- ① 탄력섬유 조직의 이상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 ② 탄력섬유 조직의 형태가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인다.
- ③ 콜라겐이 급격히 감소한다.
- ④ 망상층의 진피가 함몰한다.
- ⑤ 섬유아세포가 증가한다.
- ⑥ 피하조직 상단과 진피층 하단에 있는 지방세포가 증가한다.
- ⑦ 비정상적인 혈관이 확장된다.
- ⑧ 림프관이 소실된다.
- ⑨ 면역계에 이상이 온다.

(3) 피부 노화의 결과

- ① 진피내의 무코다당류(하아루론산)의 감소.
- ② 피지생성의 감소 - 피부가 지쳐 보인다.
- ③ 수분손실의 증가 - 피부 당김 증상이 심해지고 주름이 형성된다.
- ④ 각질세포의 응집력 강화 - 표피가 거칠고 비듬이 일어나 보인다.
- ⑤ 표피세포의 교체율 감소 - 기저세포의 세포생성 감소.
- ⑥ 멜라닌 세포수의 감소 -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이 감소한다/피부의 색소 침 착 현상이 일어난다.
- ⑦ 콜라겐의 감소.
- ⑧ 엘라스틴의 변질(피부의 탄력이 감소되어 주름이 심해 보인다).
- ⑨ 피부내의 지방결핍.

(4) 피부 노화의 치료

주름이 많고 거칠며 탄력이 떨어진 피부는 우리 몸 안의 혈관이나 장기 역시 노화되었다는 증거이며 이런 노화의 원인을 식생활에서 찾는 것이 최근의 성향이다.

노화된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 주름을 펴는 수술을 하는 치료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는 것과 같은 대증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노화의 원인을 찾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감소시켜 균형을 맞춰주고 정상을 되찾아 주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최상의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부 노화 치료의 핵심은 피부 노화가 단지 피부의 노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치료 역시 스킨케어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다량의 수분, 양질의 단백질, 오메가-3 필수 지방산 같은 몸에 좋은 지방, 기타 노화의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영양소의 적극적인 섭취로 인체 내의 음양(陰陽)의 조화를 이루고, 기혈(氣血)과 경락 순환을 개선하며, 장부(臟腑) 기능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노화를 지연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한의학적 노화 방지의 개념이다.

7) 주름살

(1) 주름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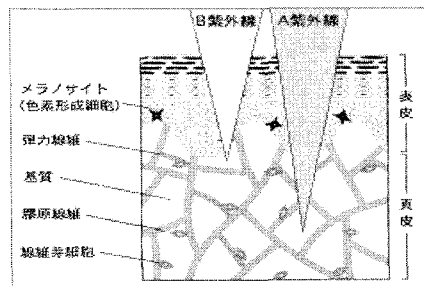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얼굴의 경우 피부 밑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것을 표정근이라고 하는데, 웃거나 찡그리거나 말을 하는 등 같은 표정을 반복하여 근육을 움직이므로써 그 위에 붙어 있는 피부가 변형을 일으킨다.

젊을 때는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면 변형이 해소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 원인에 의해 근육변형이 해소되기 어려워진다. 그것이 결국에는 본격적인 주름이 되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2) 주름의 발생 메커니즘

주름의 형성에는 물리적인 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일시적인 주름의 형성도 필요한 조건이고, 장기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된다. (광노화의 원인이 되는 파장은 주로 UVB, UVA이다.)



즉 젊은 피부는 살결이 삼각형으로 정돈되어 있다. 여기에 건조가 진행된다 살결이 없어지고 한쪽 방향으로 피부 홈이 깊어지는데, 이것이 건조주름이다. 건조

주름은 피부 각질층에 수분 량이 저하된 상태로 이것을 방지하면 자외선의 영향이나 탄력을 지탱하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변화하여 잔주름이 그대로 고정하게 된다. 이것이 계속 자외선을 받으면 고정된 잔주름 부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섬유상 단백질이 변성되어 큰 주름으로 깊어진다.

(3) 크기에 따른 주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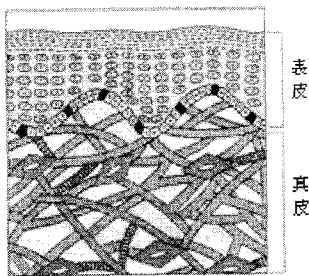
작은 주름은 표피 및 진피 윗부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며 깊은 주름은 진피 깊은 곳의 변화에 의해 생성된다.

① 각질 수분 량과 관계가 깊은 잔주름

각질 수분 량의 저하는 피부의 건조와 유연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잔주름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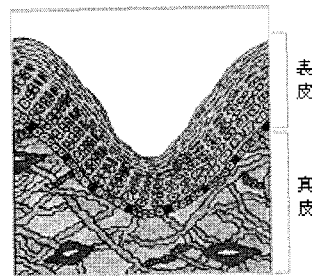
나이에 따르는 각질층의 수분저하는 각질세포간의 지질의 감소(물 분자결합력이 우수한 세라마이드의 결여가 가장 크게 관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피부에 생기가 있는 상태



(피부 내부의 작용이 정상)

주름이 생긴 상태



(피부 내부의 작용이 저하)

② 진피 변화가 관련된 깊은 주름

진피세포의 매트릭스는 규칙적인 seat구조를 지니며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의 그물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를 GAGs가 있다.

노화피부에서는 섬유아세포의 활성저하에 따라 진피 세포의 매트릭스에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콜라겐 섬유는 노화가교가 형성되어 경직되고 탄성을 잃게 되며 엘라스틴은 변성, 붕괴되고 아미노산 조성이 다른 엘라스틴이 생산되어 기능장애가 진행된다. 그 결과 피부는 유연성을 잃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을 잃게 된다.

③ 연령과 주름의 종류

표정주름

웃거나 우는 등 표정이 생겼을 때 생기는 주름으로 무표정일 때는 사라지는 일시적인 주름이다.

건조주름 (20~30대 전반)

피부표면의 각질층에 수분부족으로 생기는 주름, 외부환경의 영향이나 수면 부족등에 의해서 생기기 쉽지만 보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잔주름 (30대 후반~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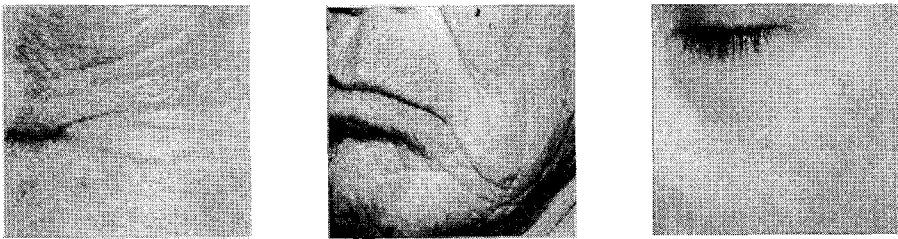
피부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섬유질까지 손상된 상태. 진피에까지 작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약화시킨다.

큰 주름 (50대 이후)

잔주름의 흠이 보다 깊게 된 상태로 화장품으로 회복이 어렵다.

④ 외관적 특징에 의한 노화주름의 종류

주름은 외관적인 특징에 의해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선상주름(linear wrinkle)

흔히 눈꼬리에서 볼수 있는 crow's feet과 이마에 수평으로 된 주름 입주위, 미간과 같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주름으로 30~40대에서 자주 발생하며, 깊고 명확한 주름이다.

자연노화에 의해 생겨 발생하지만 자외선에 의해 심화된다.

B. 도형주름(glyphic wrinkle)

얼굴이나 볼, 목덜미, 손등 등의 노출된 피부에 보이는 깊은 주름으로 교차상의 주름으로 햇빛에 의한 영향이 크다.

C. 미세주름(crinkle)

피복부에 생기는 잔주름으로 70~80대에 주로 출현한다. 주로 고령자의 비조사부위인 대퇴, 복부에 보이는 주름이다.

원래는 노화에 의한 생리화적인 변화에 기인하며 광노화와는 관계없게 생긴다.

⑤ 주름의 예방을 위한 생활법

- a.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 b. 피부에 적절한 수분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주변온도나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보습성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생수나 신선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여 피부 내 세포 내의 수분을 공급한다.
- c.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피로가 쌓이면 미세혈관에 혈액공급이 원활히 되지 못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된다.
- d. 담배 연기는 피한다.
연기에 노출되면 피부가 훨씬 건조해지며, 연기 속에 피부노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더욱 좋지 않다.
- e. 잘못된 표정습관을 고친다.
표정에도 무의식중에 굳어버린 습관이 있어 얼굴피부에 불균형한 흔적을 만든다. 예를 들어 시력이 나쁜 사람은 미간에 세로주름이 잡히기 쉽고, 턱을 피는 습관은 턱의 피부를 늘어지게 만든다. 엎드려 자거나 베개를 높이 베고 자는 습관은 눈가의 잔주름과 목피부의 늘어짐을 재촉한다.

(4) 기타 피부 트러블

① 아토피

아토피는 심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피부병의 한 종류로서 영어로 'Atopic eczema' 또는 'Atopic dermatitis'로 불린다. 원래 어원은 "I burn"이라는 그리스 어원의 용어로서 아토피안의 가려움증을 한번에 대변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원인은 '혈열(血熱)과 혈독(血毒)이다. 주로 체질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나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발병인자 중 하나이다.

계절, 주거 환경, 온도, 습도, 음식, 알러젠, 미생물 등 외부적인 환경요인과 유전적요인, 면역학적 이상, 피부장벽 기능손상, 스트레스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나 발생현황 등을 살펴볼 때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서구화된 생활습관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요인들이나 조건들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과민하게 활동하는 피부의 면역계를 자극하기도 하며, 가려움증의 주기를 가속시

켜서 피부의 손상을 증가시키게 된다.

악화시키는 요소는 자극제(Irritant)와 알러지(Allergen)의 두 가지로 감정적 요인이나 감염도 아토피피부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토피의 치료제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 프로토픽(Protopic ointment), 엘리델(Elidel)과 같은 면역억제제, 항생제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아토피에 대한 뚜렷한 연구 성과가 알려지지 않아 보습제에 의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류를 처방하여 염증과 가려움을 억제하는 방식을 전통적인 치료로 사용하여 왔고, 이외에 가려움을 줄이고 수면을 위하여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였고 감염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는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염증, 가려움,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을 경감시켜주지만, 장기 사용에 따라 피부가 얇아지거나(Skin thinning) 피부위축(Stunting of growth), 상흔(Stretch marks), 피부변색(Skin discoloration)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치료제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아토피의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청혈해독(淸血解毒)요법의 한방치료와 함께 식이요법과 환경개선요법 등의 자연요법이 적절하다.

② 여드름

여드름이란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세균 감염질환, 또는 모낭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사춘기가 되면 남녀 모두 남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모낭 옆에 붙어있는 피지선을 자극하게 되고 그 결과 피지선이 커져 많은 피지가 분비된다. 이와 동시에 털구멍 즉 모공 입구의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접착력이 높아져 모공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 그 결과 모낭 내에 피지가 쌓이고 모낭 내에 살고 있던 세균이 번식하여 염증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여드름이다.

근본적으로 피지선을 자극하는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과 모피지선(毛皮脂腺)에서 번식하여 피지를 분해, 유리지방산을 생성하고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그네스라는 세균이 작용하여 생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수험생의 경우처럼 계속되는 긴장과 수면 부족 등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욱 심해지게 된다.

특히 사춘기를 훨씬 지난 30-40대에 발생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스트레스가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여드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바르는 화장품이나 스테로이드성 약품의 남용 등도 여드름을

나게 한다.

여드름 화장품의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화학적 항균물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항생제를 이용할 경우 내성균 유발과 광과민 작용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피지의 과잉분비와 모공 폐쇄이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유성화장품의 사용은 여드름을 악화시키므로 광물유, 수지, 콘오일, 코코아 버터, 스퀴알렌, 오레인산, 탄소수 12이하의 지방산 등이 포함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면포, 폐풍분자 등으로 부르며 주로 내부 장기의 이상이 원인인데, 어혈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거나 폐, 위, 대장의 열이 내부 장기에 축적이 되어 얼굴이나 상체로 올라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로 안면부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본다.

소화 장애, 변비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및 정신적인 압박감 등이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의 통로인 경락 계통 중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위 경락과 대장 경락에 열을 쌓이게 하여 이 열이 모공을 통해서 분출하는 것이 여드름의 발생 기전이다. 따라서 이 열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체내의 열독(熱毒)을 풀어주어 여드름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을 해결하면서 피부의 트러블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 원리이다. 즉 청열해독(淸熱解毒)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내장에 쌓인 열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환자의 체질과 비만 환자, 마른 환자, 열이 많은 환자 등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외치(外治)의 개념으로 여드름으로 예민해진 피부에 항여드름 및 항염증 효과를 있으며 피부의 열을 풀어주는 성질이 찬 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한방 화장품과 피지조절 효과와 항염 효과가 뛰어난 천연물로 만들어진 제품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The state of the art

조선시대 3대 의서(醫書)인 ‘동의보감’을 비롯해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 위에 음양오행(陰陽五行)설 및 경혈(經穴)·경락(經絡) 작용을 통한 피부효과·효능 등이 상품적 가치로 적용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중점 육성품목으로 한방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가 산·학·연을 연계한 ‘한방 신원료 개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을 발표한 것과 함께 한방 화장품 촉진 및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관련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한방 브랜드의 잠재적 수요창출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방 제품이 글로벌 브랜드로써 충분한 경쟁요소를 갖췄다고 인정받는 부분은 화학·광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천연 약재의 복합처방으로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피부를 곱게 활성화시키는 한의학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통 한의학과 한의서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방이론이 결합되면서 기품있고 은은한 멋을 지닌 정적인 여성상을 추구, 한국적 감성을 기반으로 하여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창조했다.

III. 결론

한의학적 피부치료는 음양기혈장부 등의 한의학적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한방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는 기능성 성분의 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여드름, 아토피 치료 외용제의 개발도 활발히 되어 왔다.

앞으로는 인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참고 문헌

- 특허청, 천연물 의약 및 화장품 I·II, 특허청, 2003.
- 강학회, 한의학과 화장품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제3차 워크샵 자료집, 2003.
- 김주덕, NT·BT 등이 집약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산업자원부 신산업분과 위원회(화장품, 향기), 2001.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화장품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2002.
- 보건복지부, '2003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2003.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21세기 화장품 산업 특화와 지원·육성을 위한 국산 한방화장품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화, 2003.
- _____, 21세기 화장품 산업 특화와 지원·육성을 위한 화장품 정책 종합설명회, 2003.

- 안덕균, 한방미용의 전망,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제1차 워크샵 자료집, 2002.
- 안덕균, 피부미용의 약물요법,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제4차 워크샵 자료집, 2003.
- 안덕균, 피부치료에 상용하는 본초와 방제,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광주.전라지부 창립 총회 및 제5차 워크샵 자료집, 2003.
- 이은미, 한방화장품의 활용, 제1차 대한한방피부미용사협회 창립총회 및 워크샵, 2002.
- 김혜향, 피부미용에 사용 가능한 한방약재와 그 효과에 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영호, 한방자원의 생명·정보기술 사업화 동향에 대한 연구, 경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p. 11.
- 오혜진, 인삼 성분을 함유한 화장료의 특허 동향, 특허청, 2003
- 주간신문 CMN, 전성기 '한방화장품 마케팅전략 분석', 2003.10.
- _____, '중소 한방화장품 업체, 정부 수출지원 방안', 2003. 5. 7.
- _____, '한방 브랜드 현황 입체 분석', 2002. 10. 30.
- _____, '한방화장품 세계화', 2003. 2. 26.
- _____, '한방화장품 육성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2003. 5. 7.
- 주간 창업신문, '떠오르는 시장, 한방화장품', 2003. 8. 28.
- _____, '한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전망', 2003. 10. 23.
- 월간 『한방과 건강』, "한방화장품 토종 브랜드 자존심 지킨다", 2003.1.